

---

판매가 주춤하면 컨셉 바꿔볼 생각부터 먼저 하게 돼요.

오랜만에 <도덕경>을 읽어볼까?

자네, 한자는 익숙하지 않지? 잘 몰라도 한문은 한 자 한 자 음미하면서 읽으면 더 맛깔 난단다.

天下有始 以爲天下母 (천하유시 이위천하모)

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니

그것을 모든 일의 어미라 한다.

既知其母 以知其子 (기지기모 이지기자)

어미를 알게 되면

(그로써) 그 아들을 안다.

既知其子 復守其母 (기지기자 복수기모)

그 아들을 알았으면

돌아가 그 어미를 지켜라.

沒身不殆 (몰신불태)

(그리하면) 죽도록 위태롭지 않으리라.

여기서 핵심은 ‘어미(母)’라는 용어야. 자식은 어미에서 비롯되었으니 어미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지. 거꾸로 그 자식이 누군지 알았거든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그 뿌리인 어미를 지키라잖아. 그렇게 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지.

자네가 사업을 시작할 때, 처음에 가진 생각이나 사명감 같은 게 있었을 거야. 이걸 초심初心이라 하잖아. 두어 가지 브랜드의 초심을 되짚어볼까?